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과 미국－이스라엘관계

리 주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동위기는 유대복고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랍인민들속에서 양양되고 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하며 이 지역을 자기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생겨 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중근동정세가 계속 긴장되어 있는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를 조종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기인합니다.》(《김일성전집》 제44권 104페이지)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중동에서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주목을 끄는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서아시아지역의 지중해연안에 위치하고있는 팔레스티나령토는 이전에 카난지역으로 불리워왔다. 이 지역에는 원래 B.C.4000년 말엽에 셈족이 살고있었다.

B.C.12세기에는 팔레스티나인들이 정착하여 카난지역(팔레스티나)을 지배하였다.

B.C.11세기에 이곳에 침입한 유대족은 팔레스티나인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B.C.1040년에 헤브라이왕국을 세웠다.

팔레스티나지역에는 B.C.7세기경부터 아랍인들이 이주하여 살면서 아랍인국가를 세웠다. 팔레스티나는 그후에도 계속 페르샤인, 로마인들의 강점과 통치를 받아왔는데 7세기에 로마제국을 타승한 아랍인들이 팔레스티나를 넘겨받고 이곳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현지의 토착민들과 동화됨으로써 점차 현재의 팔레스티나아랍인으로 되었다.

12~13세기에 팔레스티나지역은 유럽나라들이 침략적목적밑에 조직한 십자군에 의하여 강점되었고 그후 16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시기까지는 튀르키예의 지배밑에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튀르키예가 패망하자 이 지역은 1920년부터 영국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었다.

한편 19세기말부터 세계도처에 널려져 살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만을 받으며 살아오던 유대인들속에서 극단적인 유대복고주의운동(시오니즘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유대복고주의는 세계도처에 널려져있는 유대인들을 팔레스티나땅에 이주시키며 팔레스티나에서 살고있는 팔레스티나인들은 쫓아내거나 《박멸》하는 방법으로 유대인국가를 재생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얻으려고 대외활동을 활발히 벌렸다.

그 활동의 첫 단계로서 유대인들은 영국을 등에 업고 유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당시 유대복고주의운동을 지도하던 로씨야계유대인 와이즈만이 값높은 폭약을 영국에서 발명하여 여러 부문에 커다란 도움을 준것으로 하여 많은 지지를 얻자 유대인들은 영국의 힘을 리용하여 유대국가를 건설하려 하였으며 이것은 지중해동남지역의 전략적위치를 강화할 요충지가 시급히 요구되었던 영국의 의도와 완전히 부합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당시 영국의 외무상이였던 벨푸어가 벨푸어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함으로써 유대인들이 팔레스티나에 국가를 세울수 있는 국제적환경이 마련되였다.

영국은 벨푸어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1922년부터 팔레스티나지역에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랍인들의 항거에 겁을 먹은 영국은

팔레스티나지역으로의 유대인이주를 제한시키게 되었다.

영국과 유대인들사이의 관계는 악화되고 유대인들은 상전을 미국으로 바꾸게 되었으며 결국 미국의 지지밑에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이 생겨나게 되었다.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의 풍부한 원유자원과 군사전략상의의가 있는 지리적위치에 눈독을 들여오던 미국이 유대인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이 지역을 타고았으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한데로부터 발생하였다.

미국은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영국의 《위임통치권》을 철폐하고 팔레스티나에서 영국군을 철수시키며 이 지역을 유태국가, 아랍국가, 꾸드스국제관리지구로 분할할데 대한 비법적인 《결의》를 채택,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1948년 5월 팔레스티나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유태국가가 생겨나게 되었다.

유엔결정에 의해 생겨난 팔레스티나의 령토는 이스라엘의 령토보다 작았다.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은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주변의 아랍국가들이 유태국가의 수립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한 제1차 중동전쟁의 발발로 더욱 격화되었다.

전쟁은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또 아랍나라들이 공동행동보조를 맞추지 못한것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전쟁기간에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유엔결의에 따라 팔레스티나에서 차지하게 되어있는 령역을 56%로부터 77%로까지 확장하였다.

이 전쟁에서 요르단은 팔레스티나의 요르단강서안지대를 점령, 병합하고 나라이름을 현재의 하셰미트요르단왕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예쥘트도 팔레스티나남부의 지중해연안 가자지대를 차지하였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하여 팔레스티나땅에는 난데없는 유태국가-이스라엘만 생겨나고 아랍국가를 세울데 대한 유엔의 결정은 지상공문으로 날아났으며 약 100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조국을 빼앗기고 여러 아랍나라들에 흩어져가 피난민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후 1967년에 일어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예쥘트가 점령하였던 요르단강서안지대와 가자지대까지 다 빼앗음으로써 사실상 영국이 팔레스티나라고 명명한 전체 지역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지배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팔레스티나인들은 자신들이 태고적부터 살아오고 자신들의 력사와 문화가 깃들어있는 정든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 5월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유태복고주의를 소멸하고 팔레스티나국가의 창건을 목표로 한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이 결성되었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빼앗긴 전 팔레스티나령토를 되찾는것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점차 《요르단강서안, 가자지대에서의 국가건설》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야씨르 아라파트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의 지도자로서 유리한 지역들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은 급변하는 정세의 흐름속에서 전진과 퇴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1991년 10월 마드리드 중동평화회담을 시발점으로 하여 아랍-이스라엘사이에 간고한 평화회담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도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은 중동평화과정의 관건적인 고리로 되었다.

1993년 9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은 오슬로평화협정에 서명하였는데 결과 쌍방은 《호상승인》이라는 역사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쌍방사이에는 비록 제한된것 이기는 하지만 《팔레스티나림시자치에 관한 원칙선언》이 조인되었으며 1994년 5월부터 가자와 에리코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강점과 지배가 종식되고 7월에 팔레스티나자치정부인 민족당국이 수립되었다.

원칙선언에 의하면 팔레스티나의 잠정자치기간은 5년으로서 1999년 5월에 끝나고 동시에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대에 관한 문제는 쌍방사이의 최종지위교섭에서 합의결정 하게 되어있었다.

2000년 7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종지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꾸드스문제, 유대인정 착촌문제 등에서의 의견상이가 복잡해져 호상불신만 증대되었다.

꾸드스문제만을 놓고보더라도 꾸드스에 있는 성지귀속문제는 쌍방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첨예한 문제로 되고있다. 꾸드스(일명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3개 종교의 성지가 있다. 이가운데서 유대교의 《한탄의 벽》과 이슬람교의 《등근 바위지붕》은 서로 이웃해있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는 성지를 지키려는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들의 충돌이 그칠새 없었으며 따라서 성지귀속문제는 그 어느 측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첨예한 문제로 되었다.

이러한 난문제들로 하여 호상불신만 증대되자 팔레스티나무장과격파에 의해 꾸드스 등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의한 자폭공격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였다.

이스라엘은 보복조치로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야씨르 아라파트를 그의 저택이 있는 라말라흐시에 《연금》시키는 한편 《연금해제조건》으로서 자폭공격조종자들을 넘겨줄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쌍방사이의 관계는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지난 시기에 이룩되었던 성과들이 모두 무효로 되어버렸다.

력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은 인차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있다. 그것은 이 모든 악순환의 뒤에는 미국이 있으며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스라엘관계는 서로 저들의 리해관계로 하여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여주고 이스라엘이 미국과 결탁하는 관계로 되었다.

미국은 9.11사건과 대이라크침공이후 아랍세계의 이슬람교도들속에서 높아지고있는 반미감정을 녹잡힐 목적밑에 본격적인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해 이스라엘쪽으로 치우치는 미국의 그릇된 처사와 그에 대한 팔레스티나지도자들의 불만 등으로 하여 진척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있다.

미국-이스라엘관계는 무엇보다먼저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제패전략》에 기초하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아랍지역을 포함한 중근동지역은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권안에 있는 것으로 하여 미국이 발을 들이밀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자연부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중근동지역을 포기할수 없어 미국은 유대복고주의자들을 내세워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국가를 창설하게 한 다음 이스라엘에 수많은 경제군사적지원을 주어 이스라엘을 중동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리용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교활한 리간분렬술책을 리용하여 아랍나라들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성하여 아랍나라들이 단합된 힘으로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미국-이스라엘관계는 다음으로 미국의 선거표와 금권을 다같이 장악한 권모술수의 대가들인 유대인들의 역할에 기초하고있다.

사실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미국에서 유대인인구비율은 높지 않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수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560만명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미국정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력대 미국대통령후보자들이 감히 홀시하지 못할 정도이며 유대인들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데서도 감히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이것은 력사적으로 온갖 천대와 멸시만을 받으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체로 터득한 독특한 기업운영방법과 권모술수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이기에 미국정계에서 유대인들의 원외활동은 그 맹렬성에 있어서 거의 《신화》에 가깝다.

유대인원외활동의 본부는 그 명칭이 미국이스라엘공공사무위원회로서 일명 《제2의 이스라엘외무성》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기구의 목적은 유대국가인 이스라엘의 리익증진과 손실저지이다.

이 기구는 활동중심을 선거사업에 놓고 친이스라엘후보에게는 현금과 투표권을 집중시키는 한편 친아랍후보에 대해서는 보이코트하는 극단적인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이 공공사무위원회는 이스라엘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이라면 그 어떤 목표이든지 달성하였다.

이 기구의 《막강한》 세력과 영향력으로 하여 미국대통령후보자들은 친이스라엘적인 선거강령을 내걸고있으며 당선되어서는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있는 이스라엘은 날로 오만방자해지면서 유대인정착확장책동에 매여달리고있으며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고있다. 이것은 아랍나라들에 큰 위협으로 되고있다.

아랍나라들은 아랍국가들의 리익실현을 공동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굳게 단결하여 이스라엘의 전횡을 막고 팔레스티나인들의 민족적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아랍나라들은 제4차 중동전쟁때 공동행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이스라엘침략군을 몰아낸 경험을 되살려 목전의 리익보다 전체 아랍국가들의 공동의 리익실현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여야 한다.

자주성을 지향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언제나 아랍인민들의 편에 서있다.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전횡을 막고 미국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전체 아랍국가들의 자주적권리가 확고히 보장되고 영원한 평화가 수립되는것과 함께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거세찬 투쟁이 힘있게 벌어질 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수립되게 될것이다.